DBpia

한국어 증거성 표지의 담화화용적 기능

혼잣말의 쓰임을 중심으로

The discourse pragmatical functions of Korean evidentials - focused on private speech usage

저자 (Authors)	진관초 Chen, Kuan Chao

출처 (Source)	한국어 의미학 48, 2015.6, 79-114(36 pages) Korean Semantics 48, 2015.6, 79-114(36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어의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Semantic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89573
APA Style	진관초 (2015). 한국어 증거성 표지의 담화화용적 기능. 한국어 의미학, 48, 79-114

이용정보 (Accessed)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140.119.***.89 2020/03/20 14:0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어 의미학 48, 79-114 (2015. 6. 30.)

한국어 증거성 표지의 담화화용적 기능: 혼잣말의 쓰임을 중심으로

진관초
(연세대학교)

<Abstract>

Chen, Kuan Chao. 2015. The discourse pragmatical functions of Korean evidentials - focused on private speech usage. *Korean Semantics, 48.*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Korean evidentials and explore through the evidentials how speakers express the features of their communicational intention in their private speech. During the process of using evidentials, Korean speakers not simply express the information source, but also convey a variety of pragmatic functions. The pragmatic functions are frequently found in the phenomenon of private speeches. This research explores these features by Korea drama corpus, and finds that private speeches are not speaker's meaningless murmurs but private speeches are related to different aspects such as speaker's cognitive function and factors of discourse contexts. Based on whether there are hearers or not, the thesis firstly divides private speeches into communicational and non-communicational, and then investigate the various features of private speeches from the aspects of 'attribute of information', 'speaker's emotions', and 'topic of dialogues'. Above all, due to the meaning of evidentials, private speeches are found to indicate the pragmatic functions of binary opposition. In the communicational private speeches, the attribute of information can be divided into the request for information and the provision of evidence and speaker's emotions can be classified into outlet for the emotions and empathy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of the emotions. The topic of dialogues includes introducing a new topic and changing a topic. In the non-communicational private speeches, the attribute of information can be classified into memory recall and self-persuasion, and speaker's emotions also can be divided into outlet for the emotions and empathy of the emotions.

핵심어: 한국어 증거성 표지(Korean evidentials), 담화화용적 기능(discourse pragmatical functions), 혼잣말(private speech), 독백(monologue), 한국 드라마 말뭉치(Korea drama corpus)

1. 서론

한국어 화자는 증거성 표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증거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용적 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들 화용적 기능 가운데 혼잣말처럼 쓰이게 되는 특이한 현상이 종종 발견될 수 있다. 이 글은 한국어 증거성 표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화자가 혼잣말로 발화할 때 증거성 표지를 선택함으로써 의도하는 의사소통적 특성을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둔다.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요소가 매우 발달한다.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어미가 차지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들 어미 중 구어나 사용역별로 살펴볼 때 문어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구어에 적극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증거성을 나타내는 표지들이[1] 특히 그렇다. 증거성(evidentiality)은 화자가 발화하는 문장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했는가, 즉, 정보의 출처(information source)를 명세화하는 범주이다. 여기서 말하는 화자의 정보의 출처는 정보의 획득 방법으로 화자가 자신의 오감을 통해 직접 경험한 것(direct, 직접),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게 된 것(reported, 보고), 이 두 가지의 증거 또는 어떠한 증거를 근거로 추론하여 얻게 된 정보로

1) 여기서 말하는 '표지'(marker)는 어미뿐만 아니라 복합구성 등 우언적 실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어의 증거성은 어미라는 굴절 형태소로만 실현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문법화된 복합구성으로도 실현 가능하다고 파악하는 논의도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표지'라는 용어로 이를 총괄하기로 한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inferred, 추론) 구분된다. 한국어에서 이러한 정보를 표현하는 표지가 무엇인가를 비롯하여 증거성 체계를 탐구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 아래의 <표 1>은 한국어 증거성 표지 목록 후보군이다.

<표 1> 한국어 증거성 표지 후보 목록

증거 유형	실현 문법 표지
직접 증거	-더-, -네, -길래
추론 증거	-군/구나, -겠-, -나/는가 보-, -는 모양이-
보고 증거	-(다, 냐, 자, -라)+ㅐ, 인용 융합형 어미

<표 1>에서 제시된 한국어 증거성 표지 목록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아직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3] 이들 표지는 문어보다는 주로 구어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가 증거성 표지를 선택하여 정보의 출처를 나타낼 때 발화 상황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한다는 점에서 증거성의 사용은 화용적이며 맥락의존적임을 의미한다. 즉, 증거성 표지가 사용될 때 다른 언어 표지(형식)처럼 기본 의미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함의한다. 곧 증거성 표지의 사용은 단순히 화자가 정보의 출처를 표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증거성의 내포적 의미나 특별한 표현 효과를 겨냥한 화용•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증거성을 나타내는 표지가 혼잣말처럼 쓰인 발화로 판단되는 것이다.

2) 한국어 증거성 관련 대표적인 연구로는 송재목(2007), 정인아(2010), 박진호(2011), 김진웅(2012), 이의종(2012), 박재연(2013) 등을 들 수 있다. 증거성을 한국어 교육에 접목시키고자 시도한 연구로는 임채훈(2008), 박근영(2013), 진관초(2013) 등이 있다.

3) 한국어에서 증거성 범주가 있는지 여부, 양태 범주, 특히 인식양태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한국어 증거성을 주제로 한 연구가 가장 쉽게 받은 질문일지도 모른다. 일단 본고에서는 증거성을 발화시 화자의 정보 획득방법을 나타내는 범주, 인식양태를 발화시 명제 내용의 참일 확률(진리치)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범주로 보고, 이 두 범주를 구분하는 입장을 취한다. 또한 <표 1>에서 제시한 증거성 표지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증거성과 양태의 구분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1) (어제 배웠던 단어나 표현이 오늘 기억이 나지 않아 짜증내면서)
이건 지난번에 한 번 본 건데. 뭐였더라? 뭐였더라? (다시 사전을 찾고)
아, 맞다! 이거였지!

(2) (신년 달력을 보면서)
ㄱ.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ㄴ. 벌써 한 해가 지나가다니...

예문(1), (2)에서 밑줄 친 부분은 선행 연구에서 증거성 표지로 논의되었던 것들이다. 보다시피 예문(1)에서는 '-더라'가 평서문 종결어미임에도 불구하고 의문문처럼 쓰여 혼잣말 효과를 나타낸다. 예문(2)에서 [새로 앎], [놀라움]이라는 의미 자질을 지닌 '-구나'와 '-다니'는 화청자가 존재하는 상관적 장면에서 많이 쓰이기는 하나, 단독적 장면에서도 혼잣말로 하는 발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증거성은 화자가 발화할 때 정보의 출처를 근거로 삼아 표현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증거성에 의한 발화에서는 청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청자가 없을 경우 화자가 굳이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청자가 상정되지 않을 경우, 즉 일반적인 증거성의 용례와 상이하게 사용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화용론적 차원의 문제라 하더라도 좀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기존의 증거성 관련 연구는 통사•의미론적 차원에서 증거성 표지를 다루었으며 담화화용적 특성을 산발적으로 밝히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고는 증거성 표지의 담화화용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특히 화자가 증거성 표지를 사용하여 혼잣말을 발화할 때 보이는 양상을 조망해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발화의 화용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연 발화의 전사에 기반한 구어 코퍼스 분석이 활용된다. 그러나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혼잣말은 그 특성상 자연 발화의 실례를 수집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 30여 편의 한국 드라마 대본을 수집하여 준구어 말뭉치(약 4,060,650 어절)를 구축함으로써 용례를 분석하여 예문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용례 검색도구는 국립국어원의 말뭉치 검색 프로그램 '글잡이(직접)'를 사용하였다. 다음의 용례 정리 단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계에서는 엑셀을 통해 각각의 증거성 표지에 따라 그 담화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2. 기본적 논의

증거성 표지는 구어 환경에서 자주 사용되므로 담화화용론적 영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증거성 표지가 화청자로 이루어진 대화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혼잣말로도 기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동안 혼잣말은 물론 증거성에 대한 담화화용적 접근이 미진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혼잣말의 정의를 검토하고 그 유형을 재조명함으로써 혼잣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증거성이라는 범주가 담화화용 상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2.1. 혼잣말의 이해

일반적으로 혼잣말은 의미가 없는, 중얼거리는 소리 정도로 인식되곤 하며, 혼잣말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제시되고 있다.

(3) ‘혼잣말’의 사전적 정의
ㄱ. 말을 하는 상대가 없이 혼자서 하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ㄴ. 남이 듣건 안 듣건 상관하지 않고 혼자서 중얼거리는 소리. 『연세한국어사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의 사전적 정의를 자세히 보면, ‘청자의 유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에서는 화자의 발화가 청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으며, 『연세한국어사전』(이하 『연세』)에서는 청자가 있는 상황도 맥락에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청자의 유무에 따라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혼잣말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혼잣말이 사용되는 담화적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영근(1989/1993:303)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상황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4) ㄱ. 화자가 실제의 대화에서 화자와 공동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황.
ㄴ. 화자가 청자를 직접 의식하지 않고 獨白(혼잣말)하는 상황.
ㄷ. 演士가 공식석상에서 聽衆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상황.
ㄹ. 當局이나 企業主가 大衆이나 顧客에게 媒體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알리는 (告示) 상황.
ㅁ. 문장에서 필자가 독자를 상대로 자기의 상황을 표현하는 상황.

그의 논의에 의하면 (4ㄱ)의 상황은 화자와 청자가 대화에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점에서 이를 '상관적 장면'이라 하고, (4ㅁ)의 경우, 청자에 대한 의식함이 없이 일정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단독적 장면'이라고 부른다. 한편, (4ㄴ~ㄹ)의 상황은 약간의 논의의 소지가 있다. (4ㄴ)은 화자 단독이라는 점에서 (4ㄱ)이나 (4ㅁ)으로 보기 어렵다. 화자가 스스로 청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4ㄱ)의 성격을 보이기는 하나 화청자 사이에 일정한 사회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4ㅁ)과 유사하다. (4ㄷ)과 (4ㄹ)의 상황은 청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의식하고 일방적으로 지향된다는 점에서는 (4ㅁ)과 비슷하고 청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4ㄱ)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4)에서 제시된 상황을 바탕으로 발화 현장에서 청자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한 『표준』에 의하면 (4ㅁ)도 혼잣말이 될 수 있고, 청자가 듣건 안 듣건 발화 현장에 청자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은 『연세』에 의하면 (4ㄷ) 또한 혼잣말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고영근(1989/1993)에서도 (4ㄴ~ㄹ)은 대체로 상황이 공개적이며, 존비의 등분 선택에 대한 권한이 화자에게 주어지지 않으므로 크게는 단독적 장면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상술한 것을 통해 볼 때, 혼잣말은 실제 담화 상황에서 보다 복잡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혼잣말의 외연은 어디까지 파악되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박일섭(2007)에서는 위의 (4ㄱ~ㄷ)과 같은 상황을 예로 제시하여 (4ㄱ)을 대화, (4ㄷ)을 독화, (4ㄴ)을 혼잣말로 설명하고 있다. 이 중 혼잣말은 대화와 독화로 구분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성립한다.

(5) 박일섭(2007): 혼잣말의 성립 조건
ㄱ. 발화 현장에 말할이 이외의 상대방 없이 말할이 혼자 존재하거나,
ㄴ. 발화 현장에 말할이 이외의 상대방이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말할이가 상대방과의 물리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않거나,
ㄷ. 말할이가 물리적인 접촉을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발화 현장에 있는 상대방과의 물리적인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들을이의 반응을 전제하지 않아야 한다.
ㄹ. 혼잣말의 성립에 개입하는 말할이의 발화 의도는 주로 '표출'이다.

(5)에서와 같이 청자의 존재 여부는 혼잣말의 성립에 필수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혼잣말을 수행할 때도 화자가 언어 표지를 통해 정보를 부호화하는 과정이 있지만 청자가 이에 대해 해독(decode)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대화나 독화와는 구별된다. 청자의 반응을 전제하지 않은 이상 화자가 혼잣말을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청자를 고려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자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는 혼잣말에 대한 입장은 박재연(2000)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논의에서 혼잣말(그의 용어로는 '독백')은 잠재적 청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되, 화자가 청자를 적극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독백의 형식을 통해 발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가령 선생님과 같은 방에 있는 제자가 "어? 이 책이 여기 있었네"라는 혼잣말의 상황을 그 예로 들었다. 이 상황에서는 손윗사람에 대한 청자대우법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혼잣말이라고 하겠으나 특정 담화 맥락에서는 잠재적 청자인 선생님에 대해 "이 책이 여기 있었어요."와 같은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을 가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들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혼잣말이 행해지는 발화 현장에 청자가 잠재적으로 존재하거나 혼잣말로 실현된 발화 형식이 일반적인 발화 행위(locutionary act)처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럼 발화수반력에 따른 간접 화행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말뭉치 및 설문조사의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혼잣말이 의사소통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한국어 혼잣말의 담화•화용적 특성을 제시한 윤경원(2010)의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 그는 먼저 혼잣말의 기존 연구에서는 화자의 의식 속 또는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내부발화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들의 혼잣말을 관찰한 비고츠키(Vygotsky)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화자의 내부에 머물고 있는 혼잣말을 '내면말(inner private speech)', 음성적·명시적으로 실현되는 혼잣말을 '개인말(outer private speech)'로 구분하였다. 즉, 내면말은 청자 없이 비음성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비의사소통적 혼잣말로, 개인말은 청자의 설정이 가능하고 음성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적 혼잣말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점 하에 이 논의에서의 혼잣말은 "화자가 시공간에 제약 받지 않고 스스로 청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음성적•비음성적으로 실현시킴으로써 의미소통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하는 말"로 정의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연구의 정의가 무난하다고 판단하여 이것을 따르겠으나 청자 유무나 의사소통 장면에 따른 혼잣말의 유형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4)

2.2. 혼잣말의 유형

이 절에서는 주로 윤경원(2010)에서 제시한 혼잣말의 유형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본고의 혼잣말 유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2>는 윤경원(2010:45)에서 분류한 혼잣말의 틀을 다시 가져온 것이다.

4) 윤경원(2010)에서는 드라마 말뭉치에서 혼잣말로 발화되며 고빈도로 드러나는 '-냐', '-네', '-다', '-아/어(요)', '-지(요)' 종결형을 논의하였는데, 이 중 특히 '-냐'의 혼잣말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는 증거성 표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밝혀둔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표 2> 윤경원(2010)의 한국어 혼잣말 하위 유형

혼잣말의 유형			청자 유무	청자 의식 여부	반응 요구 유무
비의사소통적 혼잣말	내면말	고립된 혼잣말	-	/	/
의사소통적 혼잣말	개인말	독화적 혼잣말	+	-	/
		중립적 혼잣말	+	+	-
		환기된 혼잣말	+	+	+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윤경원(2010)에서는 혼잣말을 일차적으로 화자가 음성적으로 발화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내면말과 개인말로 나누었다. 그리고 위의 <표 2>에서와 같이 음성 실현 여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청자의 유무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내면말은 청자가 없으며 음성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부 발화를 말하며, 소위 개인말은 청자가 존재하며, 실제 음성으로 드러나는 혼잣말로 해석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말뭉치에서 발견되는 용례들은 사정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고 말해준다. 먼저 청자가 없는 내면말에 대해 생각해보자.

(6) (춘향 가방 내려놓다가 책상 위에 놓인 아빠 사진 액자 본다. 놀라고, 마음 아프다.)
춘향 : (혼잣말) 착한 이몽룡, 니가 못 가니까... 내가 보내줘야겠다.
≪쾌걸 춘향≫10회

(7) (발목에 붕대 감고 의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개인. 개인의 시선 따라가면 병원비를 계산하고 있는 진호 보인다.)
개인 : (혼잣말) 수상해.
진호 : (계산 마치고 다가와) 가요. 집까지 태워 드릴께요.(부축하며)
≪개인의 취향≫2회

혼잣말 발화(6)은 화자(춘향)가 혼자 자신의 방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리 내어 혼잣말을 하고 있다. 이는 앞의 (1), (2)의 맥락과 유사한 것으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로 화자의 혼잣말은 청자의 유무와 음성적 실현에 있어서는 필연적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7)에서도 파악된다. (7)에서는 청자(진호)가 계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자(개인)가 발화할 때 청자가 발화 현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때는 청자가 없는데도 화자가 잠재적인 청자를 의식하면서 음성적으로 발화하고 있다. 즉, 물리적인 공간에 청자가 보이지는 않지만 화자는 정신 공간에 청자가 있다고 상정하고 혼잣말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화자가 머릿속에서 청자를 잠재적으로 인식하고 하는 혼잣말은 실제 생활에서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 앵커나 기상캐스터 등에 의해 독화식의 발화가 빈번하게 발견된다.[5] 따라서 윤경원(2010)에서 [＋청자유무][-청자의식여부]의 자질로 설정된 '독화적 혼잣말'에 대하여 [-청자유무][＋청자의식여부]의 상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자 없이 혼잣말을 하는 경우에는 청자에 대한 의식 여부에 따라 (1), (2)와 (5), (6)은 다시 구별될 수 있다.[6]

또한 윤경원(2010)에서는 화청자가 이루는 의사소통적 장면에서라도 [＋청자][-음성실현]의 혼잣말을 [-청자][+음성실현]의 혼잣말과 같이 [-청자][-음성실현]의 내면말과 다름이 없다고 보아 고립된 혼잣말만을 인정하였다. 이에 다음에서는 의사소통적 혼잣말인 개인말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8) 은채 : (무혁을 뚫어지게 보다가...문득 시선을 내린다. 무혁이 용변중이라는 것을 깨닫고 화들짝 얼른 돌아선다)

---

5) 혹자는 뉴스 채널에서 앵커는 흔히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혼잣말이 아니라고 문제제기를 할지도 모른다. 박용익(2001/2010)에서는 대종상 시상식에서 남녀 사회자가 공동으로 시상식을 진행하는 장면을 들어 화자가 두 명이 있을 때 화자1과 화자2의 발화가 일방적으로 지향되는 일방향 지향성을 보이게 되면 화자1과 화자2의 발화를 합하여 하나의 독화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혼잣말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6) 사실, 윤경원(2010:46-48)에서는 (6)과 유사한 상황의 용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음성실현][-청자]의 혼잣말을 [-음성실현][-청자]의 고립된 혼잣말로 보아 위의 <표2>에 반영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청자가 없는 상황에서 화자가 음성적으로 실현하는 혼잣말은 청자에 대한 의식에 따라 다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음성실현][-청자]의 혼잣말과 [-음성실현][-청자]의 혼잣말을 별개로 파악하기로 한다. 또한 그의 비의사소통적 혼잣말과 내면말, 고립된 혼잣말은 모두 동일한 것이므로 세 개의 이름을 동원하여 같은 것을 명명한 것은 다소 잉여적인 면이 보인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무혁 : (부끄러움도 모르고 뚫어지게 본다....저 기집애가 왜 여기 있지?)
은채 : (돌아선 채 곰곰이 생각하며 중얼거리는) ....호주....호주....(획 돌아서며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호주...맞죠?
무혁 : (멍하니 본다....)
은채 : (음성이 들떠서) 맞죠?...그쵸?!!...호주! 맬버르은!!!

≪미안하다 사랑한다≫3회

(8)의 예는 두 명의 화자에 의해 구성되는 대화의 장면이다. 그런데 시나리오에 지시된 것처럼 이 대화는 화자2(무혁)의 내부 발화, 즉 내면말을 포함한다. 이러한 소위 'off screen sound'는 드라마, 영화 대본의 특성 상 시나리오에서 종종 발견된다. 화자2는 청자를 의식하면서도 굳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발화를 음성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8)의 [-음성][+청자][+청자의식]의 혼잣말을 단순히 [-음성][-청자][-청자의식]의 고립된 혼잣말로 취급하면 무리가 있다고 본다. 한편, 밑줄 친 화자1(은채)의 발화는 청자를 향한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혼잣말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발화는 일정한 의사소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자에게 갑작스레 물으면 서로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혼잣말을 함으로써 청자로부터 주의를 환기한 다음,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면 체면 손상의 정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9) 서래 : (수세미질 벅벅하면서 숨가쁘게 혼잣말)
말두 안돼.말두 안돼.말두, (하다가 흠칫)
지선 : (소화제 쓱 내미는)이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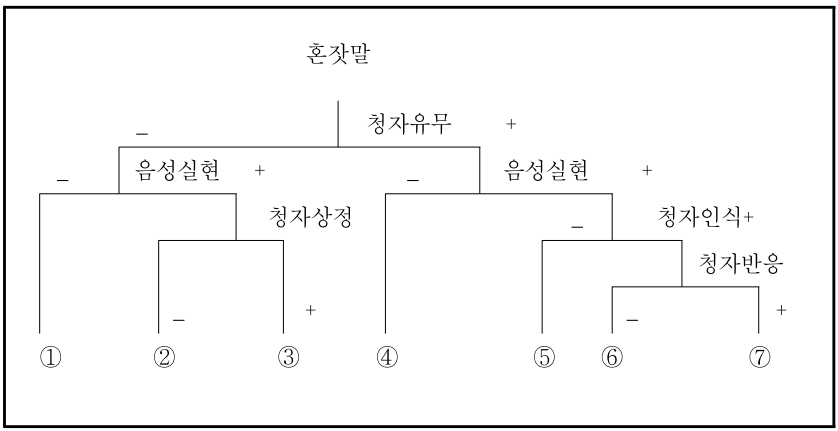
≪아내의 자격≫5회

(6)~(8)은 화자가 잠재적인 청자를 상정하고 대화하듯이 혼잣말을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9)에서는 발화하는 장면에 화자 2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8)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청자에 대한 의식이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다는 점에서 (6)~(8)과는 구별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청자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없으나 화자의 혼잣말을 발화 현장의 청자가 지각하여 그것에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대해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화자의 혼잣말이 청자에게 인식되면 발화효과행위로 이어질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담화에서는 청자의 유무와 음성적 실현, 청자에 대한 인식 등이 혼잣말의 유형에 변인으로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변인을 그림을 활용하여 혼잣말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그림1> 본고에서의 혼잣말의 유형

<그림1>에서 보다시피 혼잣말의 유형은 일차적으로 발화 현장에서의 청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단독적 장면과 상관적 장면으로 다루어지던 것과 대당된다. 다음으로, 혼잣말의 음성 발화 여부를 고려하여 다시 구분할 수 있다. 화자가 혼잣말을 할 때 청자를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3자나 해당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다.[7] 발화 현장에 청자가 존재할 경우, 화자의 혼잣말이 청자의 반응을 의도적으

7) 한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께서는 [청자인식]이라는 자질은 '담화 현장에 존재하는 청자를 의식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인데 [-청자유무]이면 [-청자인식]이 되며 ③의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해주셨다. 이에 본고에서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원래 [-청자유무]에서 설정했던 [청자인식]을 [청자상정]으로 수정하였다. 즉, 청자가 존재하지 않는 발화 현장에서 화자가 어떠한 인물을 청자로 상정하여 혼잣말을 발화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로 요구하는지에 따라 다시 구분된다. 여기서 각 유형의 혼잣말에 대하여 따로 명명하기보다는 번호를 매겨 주고 추후 말뭉치 용례 분석의 기준으로 삼는다.

2.3. 증거성과 담화화용론

증거성 표지가 혼잣말의 발화에서 사용되는 담화적 기능을 논하기 전에 일반 대화에서 증거성 사용의 화용적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증거성 표지는 기본의미를 가지면서 '공손성(politeness)'이라는 화용적 의미를 발휘할 수 있다. 전혜영(2002)에서는 공손성을 언어 보편적인 현상으로서의 한국어 어미 사용에 나타나는 공손 현상을 논의하고 있는데, 비록 이 논문에서 증거성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예시로 제시한 한국어 어미들은 증거성 표지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선어말어미 '-더-'의 기본의미는 [과거지각]에 있지만 경우에 따라 화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판단을 표현할 때 화자의 의도가 배제된 '-더-'의 [과거지각]을 부각시킴으로써 단정적인 주장을 나타내는 표현에 비해 공손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직접 증거성 표지로서의 '-더-'와 대립 관계에 있는'-네'는 [현재지각]을 기본의미로 갖고 있는데,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청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서 자신의 의사표현이 요구될 경우, 단정적인 강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네'를 사용함으로써 청자와의 대화의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추론 증거성 표지인 '-겠-'에 나타난 공손성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 전혜영(2002:123)은 '-겠-'의 일차적인 의미를 [비확정]으로 파악하며, 이 의미로 인해 공손의 의미가 확산된 것으로 보고 간접적인 표현이나 청자가 존재자일 때 '-겠-'을 사용하게 되면 공손성을 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고'는 보고 증거성 표지로 볼 수 있는데 즉, 직접적인 요청이나 제안을 하기보다는 보고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간접화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화자가 혼잣말을 발화할 때 청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청자에 대한 고려가 필수조건은 아니므로 일반적인 대화의 장면과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구별된다는 점에서 증거성 표지의 공손 효과는 적극적으로 발휘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박재연(2000)에서는 혼잣말은 청자대우법과 유관한 개념이긴 하나 청자에 대한 중립적인 대우가 아니라 청자를 아예 대우하지 않는, 즉 청자대우법을 초월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증거성 표지의 공손성은 혼잣말의 화용 맥락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손성이 증거성 표지의 본연적 의미가 아님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둘째, 1인칭 주어 제약 취소 효과를 들 수 있다. 증거성에 관련된 연구에서 '비동일 주어제약' 혹은 '인칭 제약'은 중요한 속성으로 논의되어 왔다. 화자가 발화할 때 정보의 출처를 명시하는 이유는 화자의 지식에 있지 않은 명제의 정보에 대해 증거를 찾아 정보가 참일 확률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화자의 지식 체계에 미처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unassimilated information)는 일반적으로 화자가 시각을 비롯한 감각적 기관을 통해 얻거나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외부세계의 정보이다. 그러므로 증거성 구문의 주어는 주로 외부세계의 개체이며, 따라서 비동일 주어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이 주어 인칭 제약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사적 제약이 아니라고 일찍이 지적되기도 했다.

(10) ㄱ. 계획표를 보니까 나는 내일 가더라. (장경희 1985:73)
ㄴ. (난) 이제 좀 이해가 되는구나. (장경희 1985:97)
ㄷ. 난 정말 바보인가 봐.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국어 실력이 늘지를 않아.

(10ㄱ)은 화자 자신의 행동이지만 '-더라'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문이라고 판단되는 문장이다. 장경희(1985)는 지각 행위에 감각기관과 내성(內省)이 포함된다고 보아 '-더라'의 '-더-'가 인간의 모든 감각작용과 내성을 통해 알게 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논의가 정당하다고 볼 때 화자가 지각하여 알 수 있으면 정신•심리상태, 꿈의 내용 등에 대하여 인칭에 관계없이 증거성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0ㄱ~ㄷ)에서와 같이 내성 증거를 지각하여 표현한 문장은 대개 혼잣말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만하다. 이를 바탕으로 증거성 표지의 1인칭 주어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제약 해소 현상은 증거성 표지의 혼잣말 사용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인다. 본고 또한 이에 관심을 가지고 증거성의 의미에 따른 1인칭 주어 제약과 혼잣말의 담화화용적인 상관관계를 주목할 것이다.

셋째, 증거성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화자가 명제에 대해 단언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화자가 어떠한 명제를 전달할 때 증거성을 통해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경우, 명제에 해당하는 정보는 본래 화자의 지식 체계에 정착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즉, 증거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의 속성으로 인해 명제에 대해 단언할 수 없어 화자가 어떠한 적극적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 따라서 담화·맥락에 따라 화자가 단언하지 않고 공손성을 나타내려고 할 때 혹은 책임성을 완화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일 때 증거성이 화용적으로 사용된다.[8)]

Kwon(권익수, 2012:965-966)에서는 증거성 표지로서의 '-나 보-'를 다루는 데 있어 화자의 책임회피 효과를 거리감 전략(distancing strategies)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9)]

(11) (친구에게 오늘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사과할 때)
내가 <u>아픈가 보다</u>.

(11)에서는 '-나 보-'의 증거성 표지를 사용했음에도 1인칭 주어 제약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화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를 일이 없으나 '-나 보-'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화용적 의도를 노린 것을 알 수 있다. (11)의 맥락에서

8) 이러한 관점은 김경애(2002), 정인아(2010)에서 화자가 정보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키려고 사용한 증거성 표지 자체가 화자의 확신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견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진관초 2013). 본고에서는 화자가 오히려 정보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신이 정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를 내보이려고 증거성 표지를 사용한다고 보고자 한다. 따라서 화자가 의도적으로 증거성 표지를 사용하여 단언하지 않으려는 확신의 약화나 책임의 회피 효과는 증거성의 핵심적 의미에서 나온 화용적 의미로 파악된다.

9) Aikhenvald & Dixon(2003:12)에서는 증거성 범주는 의미론적으로 '개념적 거리'(conceptual distance)를 형성하므로, 예기치 못함, 의외성과 관련된 준비되지 않은 마음(unprepared mind), 그리고 화자가 자신 발화에 대한 비단언성(noncommitment), 조심과 겸손(caution and modesty)을 함축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는 '내가 아파'라고 단언하기보다는 화자가 자신 아픔을 예기치 않게 의식하게 되어, 즉 의외성(mirativity)을 나타내면서 아픔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Kwon 2012).

본고에서 논의하는 증거성 표지의 혼잣말 사용은 화자의 소극적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즉, 청자와 대화할 때 청자의 발화에 직접 응답하지 않고 혼잣말을 발화함으로써 동문서답 혹은 화제 중단의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3장에서 진일보 검토할 것이다.

3. 한국어 증거성에 의한 혼잣말의 담화화용적 기능

언어 형식과 의미 기능에 관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다. 하나는 특정 문법 범주의 개념적 체계를 먼저 설정하고, 이 체계 안에서 일정한 개념적 영역을 표현하는 형식이 무엇인가를 묻는 명칭론적(onomasiological) 접근법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 언어 형식이 갖는 모든 용법들을 검토해 보고, 그 세부적인 용법들을 모두 기술하려는 해석론적(semasiological) 접근법이다. 이러한 기술 방법들은 담화화용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후자가 각각 언어 형식의 모든 용법을 살펴 면밀히 고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는 있으나 본고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개별 증거성 표지의 혼잣말 기능을 일일이 제시할 경우, 증거성의 범주적 의미로 인한 혼잣말의 담화화용적 특성을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일차적으로 <그림1>에서와 같이 화자가 혼잣말을 할 때 청자의 유무에 따라 의사소통적 장면과 비의사소통적 장면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화자가 혼잣말을 통해 주로 어떤 담화화용적 기능을 행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한국어 증거성 표지의 목록이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더라', '-네', '-길래', '-구나', '-겠다'[10], '-나/는가 보-', '-는 모양

10) '-겠-'은 선어말어미로서 여러 종결어미나 표현과 함께 결합하여 다양한 의미를 산출하는데 이 중 무엇을 분석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고민된다. 본고에서는 송재목(2007), 정인아(2010), 박진호(2011ㄱ), 이의종(2012)에 따라 '-겠-'을 한국어 증거성 표지로 보겠다. 또한'-다'는 Lee(이효상, 1991)에서는 문어에 쓰이는 중립체 '-다1'과 구어에서 사용되는 '-다2'로 구분하고, '-다2'는 증거성 표지로서 새로 알게 된 정보를 전달하며 화자의 의식을 유발시켜 주목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이-'[11]), '-다니'[12]의 말뭉치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3.1. 의사소통적 장면에서의 혼잣말

3.1.1. 정보의 요청 및 증거 제시

(가) 정보요청 및 재확인

위에서 논의했던 것과 같이 증거성을 통해 얻어진 정보는 화자의 지식 체계에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일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보는 화자의 기억 속에 있기는 하지만 완전한 앎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화되기 때문에 청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경우, 화자가 혼잣말 형식을 통해 스스로의 기억을 다듬어가면서 청자에게 정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기도 한다.

(12) 폭력반 : 그게 아니라. 현장에 무슨 카든가 뭔가가 있었다면서요?
오수 : 카드키?
폭력반 : 아니, 종이로 만든 거 있잖아. 뭐라더라.
민재 : 타로카드요?
폭력반 : 아, 맞다. 그거. 그래서 얘긴데.

≪마왕≫1회

할 만한 정보를 보고하는 데에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의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겠-'과 '-다'의 결합 형태인'-겠다'는 특정한 구어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고는 '-겠다'의 혼잣말 용법을 파악하고자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11) '-나/는가 보-', '-는 모양이-'에 대하여 여기서는 이것을 기본 형태만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실제 말뭉치에서 용례를 분석할 때에는 '-은 모양이-', '-던 모양이-'등 다양한 용례를 추출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12)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께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다니'에 대해 타인의 말을 인용하는 것과의 관련 여부에 따라 용법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다. 그러나 '-다니'는 보고 증거성 표지의 용법을 보이기도 하나 문법화 과정을 겪으면서 직접 증거성을 표시하는 기능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니'는 보고 증거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화자가 직접 증거에 의해 알게 되는 정보의 출처인 증거성 내지 의외성을 나타내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다니'의 이러한 두 가지 용법이 모두 증거성 범주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다니'에서 보여지는 증거성 및 의외성의 의미는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13) 소태 : 계약 하러 오셨어요?
기훈 : ...? 아닌데요.
소태 : 그럼 뭐 하러... (하다가) 가만..? 어디서 봤더라?
기훈 : ... (알아보고 미소) 오랜만이에요.
소태 : 아 맞다..! 삼청..!

≪자이언트≫26회

(12)와 (13)에서 화자는 증거성 표지인 '-더라'를 통해 스스로에게 과거의 지각 사실을 묻고 있다. '-더라'의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박재연(2006, 2008)은 '-더라'는 일반적으로 평서문에 쓰이는데 의문문에 쓰일 때 청자가 아닌 화자의 지각을 표현하므로 '자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위의 예문을 통해 '-더라'는 '자문'뿐만 아니라 청자에게도 화자의 불완전한 정보를 요구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2)에서 화자인 폭력반이 자문하기는 했지만 청자인 민재가 그 말을 듣고 화자의 불완전한 정보를 보완함으로써 대화를 완성하였다. (13)은 화청자가 서로 대우해야 할 관계에서 밑줄 친 부분은 화자가 청자에게 하는 말로 보기는 어렵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화자는 과거 경험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그 말을 들은 청자가 화자의 궁금함을 해소시키면서 대화의 전제적 정보를 보완하기도 하였다.[13)]

---

13) 이러한 관점에서 증거성 표지는 전제유발장치(presupposition trigger)로 볼 수 있다. 증거성 표지가 전제유발장치의 구실을 담당한다는 것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im(김진웅, 2012)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러나 Kim(2012)에서는 '-더-', '-네', '-지', '-대'만을 대상으로 다루어 증거성 표지가 전제유발장치라는 주장이 성립되었지만, '-구나'를 비롯한 다른 추론 증거성 표지를 고려하면 재고해 봐야할 여지가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1) A: 철수는 이번에 차를 또 바꿨어.
B: 그래? 철수 돈이 정말 많구나!

(1)에서 B는 A의 발화를 근거로 삼아 추론한 것을 '-구나'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추론된 정보는 맥락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다. 가령, 철수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바꿨다고 생각해보면 B의 추론은 취소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구나'에 의해 추론된 정보의 내역이 취소될 수 없다는 전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임을 알 수 있다. 증거성 표지와 전제유발장치의 관련 문제는 본고에서 제시한 수준에 그치기로 하며, 추후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이와 같이 화자가 증거성 표지를 사용하면서 혼잣말처럼 정보에 대한 확인을 의도하는 쓰임은 '-더라'와 더불어 '-나/는가 보-', '-다니'에서도 발견되었다.

(14) 신영 : 와, 도윤씨 쌍둥인가 보네. 형도 도윤씨처럼 잘 생기셨어요?
도윤 : (무심히) 똑같이 생겼겠죠. 쌍둥이니까.
≪신들의 만찬≫17회

(15) 신상궁 : (응?) 아... 기분이 별루신가 보다. 저 나갈까요 마마?
건이 : (끙끙 앓는 소리 변조) 네.
≪마이프린세스≫5회

(16) 기준 : (투자 계획서 나눠주며) 제가 만든 투자 기획섭니다. 저희 기획사에 오승아씨 있는 건 다들 아실 거고 김정은씨, 장나라씨, 김동완씨도 추가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근데 현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 : (비웃음) 바쁜 사람들 모아 놓고 장난해요? 돈이 없어 못 한다니. 돈 있음 내가 하지 뭐 하러 합병을 해요. 대체 요점이 뭡니까.
≪온에어≫17회

위의 용례에서 (14), (15)는 추론 증거성 표지 '-나/는가 보-'가 사용된 것이고, (16)은 보고 증거성 표지 '-다니'가 사용된 것이다. 화청자가 서로 대우해야 할 이들 발화에서 밑줄 친 부분은 반말로 발화되고 있어 직접적으로 청자에게 행해지는 말로 볼 수는 없다. '-나/는가 보-'의 증거성 의미는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획득 가능한 구체적인 직접•보고 증거를 근거로 하여 상황을 추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진관초(2013)에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발화 현장의 증거로 추론된 새로운 앎은 전형적인 평서문에 비해 청자에 대한 진술의 정보 전달력이 미약하다. 따라서 이때 '-나/는가 보-'를 통해 추론된 것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청자에게 정보를 확인해 주기를 바라며 전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16)에서도 화자가 혼잣말하기는 했으나 상대방의 발화를 반복하여 질문하는 효과(echo question)가 유발된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화용론적 현상일 뿐, 진정한 의문문의 구실을 하지는 않는다. (14), (15), (16)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가 혼잣말을 발화한 후 추가적으로 청자에게 진정한 의문문을 제시하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나) 증거제시 및 이유설명

화자가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여 정보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을 증거성의 본연적 의미 기능이라 할 때, 발화 상황에서 화자는 증거성 표지를 선택하여 일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물론 증거성의 사용은 청자지향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고 혼잣말의 형식을 빌려 다른 담화적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17) (방에서 나오고 있던 태준, 표정 있다가 소현 가까이 오고)
소현 : 왜 안 어울리게 착한 척이야?
태준 : 누가 그러더라? 내 눈엔 책임감이라곤 전혀 없다고. 그래도 막판에 착한 짓 좀 하게, 도와주라. 그럼 내 눈빛도 좀 변하지 않겠냐?
≪내조의 여왕≫16회

(18) 정우 : (자리 옮기려 일어나다) 너, 강의시간에 진짜 내 얼굴만 보는구나?
이설 : (얼굴 발그레) 네?
정우 : 수업했었잖아. 명성황후 향낭.
이설 : 아, 어쩐지 되게 낯익더라. 전 우리집에서 봤나 했죠.
≪마이프린세스≫2회

'-더라'가 (17)에서는 유사의문문으로[14], (18)에서는 평서문으로 쓰이고 있다. 여기서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화 격률'의 위반이 연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화 격률의 위반이라기보다 화자는 청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먼저 증거성 표지를 선택함으로써 그 정보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삽입말(insertion sequence)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삽입말은 청자가 필요로

14) 유사의문문(pseudo-interrogative)은 전형적인 의문문의 속성 중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는 결여하고 있다. 박재연(2005)에서는 어떤 문장이 인식양태 요소와 결합하게 되면 "그 문장이 평서문이라 하더라도 정보 전달이라는 평서문의 본연적 기능이 약화되어 청자로부터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질문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께서는 (17)의 '누가'가 의문사라기보다는 indefinite(부정)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평서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해 주셨다. 이에 대해 본고는 이것이 화용적으로 의문문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사의문문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화자는 혼잣말 형식을 빌려 발화할 수 있다. 따라서 (17)에서 의문문으로 쓰인 '-더라'는 자문으로 해석하면 어색하며, 오히려 화자가 질적 격률(maxim of quality)을 준수하고자 의도적으로 증거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아래의 용례에서는 화자가 이유를 설명하거나 해명을 할 때도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에 객관성•확실성을 기하기 위해 증거성 표지를 통해 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애자 : (바로 신났다) 어머머 어떻게 알았대? 혜리 예전에 나하고 똑같았어요? (하다 아차) 아니 내가 혜리하고 똑같았지...
인우 : (선선히) 네.
애자 : (혼잣말처럼 아쉬움에) 남자한테 어머니 소릴 첨 들어봤길래...
인우 : (먹다가 뭉클해서 애자 보는)
애자 : 엄마 없다 그래서 난 아들 없구 그러니까... 엄마처럼 챙겨주고 싶었데...

≪검사프린세스≫14회

(19)에서 밑줄 부분은 종래 [원인], [이유]의 연결어미로 다루어지던 '-길래'가 쓰인 것이다. 진정란(2005)에서는 '-길래'의 담화 기능을 밝히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이유설명], [변명]을 제시하였다. '-길래'를 통해 설명된 근거는 화자의 매우 개인적인 논리 또는 판단에 의해 결정된 내용이므로 '-아서'에 비해 인과성이 낮아 청자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참고할 만한 지적이다. (19)에서 화자 애자가 '-길래'를 선택하여 혼잣말로 발화한 것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그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뒤에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20) 목사 : (편지 꺼내더니 진지하게 "크" 감탄) 이 성도님은 편지를 썼네요. 아, 감동적이야. 물질이 중요한 게 아이에요. 마음이 중요하지. 읽어드릴게요이? (감정 넣어 읽는) 음마. 나 슬이.
이설 : (방심하고 있다 헉!!!)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목사 : 이 분은 주님을 엄마라 카는 모양이네? 뭐 아부지나 엄마나. 계속 읽겠심니더. 일단 부엌으로 가. (응?) 냉장고에서 물 한 잔 꺼내놓으시고, 싱크데 손잡이 떨어진 서랍 열면,

≪마이프린세스≫4회

(21) (은찬, 서먹해 괜히 빵을 볼이 메이도록 입안 가득 한입 베어먹는)

유주 : (과자 먹으며, 작게 웃으며, 가볍게) 무슨 말인가 해야겠는데, 은찬 씨 보니까 더 말이 안 나오네. 나 긴장했나 봐.

은찬 : (긴장한, 감추고 작게 웃는) 저도 조금...

≪커피프린스1호점≫9회

(20)의 '-는 모양이-', (21)의 '-네', '-나/는가 보-'도 [이유설명], [해명]을 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20)에서 교회 예배당이라는 격식적인 자리에서 밑줄 친 부분은 청자에게 행한 말이라 할 수 없다. 여기서 화자는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데, 이때 자신의 발화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증거성의 사용이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통해 추론하여 알게 된 신정보를 공유하려고 시도한다. (21)에서도 화청자가 서로 대우해야 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밑줄 친 부분은 화자인 유주가 청자인 은찬을 의식하면서도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해명을 혼잣말처럼 발화하고 있다. 즉, 화자는 해명을 목적으로 증거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설득력의 부족을 염려하여 발화 형식을 혼잣말로 선택함으로써 책임을 모면하는 것이다.[15] 2장에서 제시했듯이 혼잣말은 청자대우법을 초월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쓰임이 용인된다. 이와 함께 증거성의 1인칭 제약이 해소되었다는 점도 증거성 표지의 혼잣말 특징이라 엿볼 수 있다.

15) 이는 또한 '-나/는가 보-', '-는 모양이-'에 의한 추론 방식과 유관하다고 생각된다. 추론은 일반적으로 추리에 의한 가정 추론(assumption)과 결과로부터의 추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문제의 '-나/는가 보-', '-는 모양이-'는 후자에 해당된다(진관초 2013). 결과로부터의 추론은 귀납적인 추론이므로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연역적인 추론보다 낮다. 증거성 범주에서 말하는 추론과 화용론 범주의 추론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는 별개의 연구 과제이다. 이는 본고의 논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3.1.2. 정감 표출 및 정감 이입

(가) 정감 표출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증거성에 의해 알게 된 정보는 지식 체계에 온당히 정착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도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므로 화자가 감정적으로 표출한 정서적 반응이 수반된다. 흔히 불평화행과 관련된 비꼼, 비난 등으로 나타난다.

(22) 연우 : 만나봤는데, 들어오지 않겠대요. 저한테 치료받고 싶지 않다구요.
문숙 : 그래서, 날 보잔 이윤 뭐예요?
연우 : 운동치료 프로그램을 짜주셨음 해서요. 스포츠 재활 쪽으론 베테랑이시잖아요.
문숙 : ... (혼잣말) 하. 병 주구 약 주는 꼴이네.

≪닥터챔프≫8회

(23) 하니 : (업힌 채/ 잠꼬대) 이 나쁜 놈..
승조 : (혼잣말) 오하니 대단하다. '결국은' 업히는 구나... ㅎ
하니 : (좀 깨는) 응..? 뭐라구?
승조 : 오하니 잘났다구!

≪장난스런 키스≫3회

(22)에서는 화청자가 서로 대우법을 써야 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화자 문숙은 연우의 발화로부터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대신 혼잣말 형식으로 비꼬아 표현하고 있다. 비꼬는 대상과 청자 연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놓고 말할 수 없다는 이유라고 판단된다. (23)에서 화자는 [새로 앎]을 나타내는 '-구나'를 사용하여 상정된 청자를 야유(揶揄)하듯이 혼잣말하고 있다. 정인아(2010:125-127)에 따르면 '-구나'의 기본 의미가 [새로 앎]으로 파악될 때, 발화 현장에서 새롭게 발견하거나 생각하여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혼잣말, 또는 혼자 생각했으나 입 밖으로 내지 않은 내적 언어(본고의 용어로 '내면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논의가 정당하다면 '-구나' 구문은 앞에서 살펴본 정보에 대한 요청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혹은 전달이라는 기능에 비해 화자의 정감 표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있음을 말뭉치의 용례에서 방증할 수 있다.

(24) 다혜 : 선생님. 조각 미남이 영어로 뭐에요?
윤성 : 뭐?
다혜 : 선생님도 거울 보다가 깜짝 놀란 적 많죠? 나도 그런데...
나나 : (혼잣말) 미치겠다...

≪시티헌터≫7회

(25) (궁 문 활짝 열고 쳐들어오는 해영. 이설, 놀란 얼굴)
이설 : (!!) 이 밤중에 미쳤나 봐. 무슨 일이에요.
해영 : 이 밤중밖에 시간이 안 돼서. 나 내일 떠나.
이설 : (!!) 언제요? 내일? 어딜요? 또 어딜 가는데?

≪마이프린세스≫16회

(26) 민우 : 니가 인수한 공장은 껍데기에 불과해. 곧 알게 될 거다.
강모 : 도둑질한 기술로, 제대로 된 보일러 만들 수 있을까?
민우 : ...유감인데? 증거도 없이 날 도둑놈으로 몰다니.

≪자이언트≫46회

(24)에서 '-겠다', (25)에서 '-나/는가 보-', (26)에서 '-다니'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불평 또는 비난적 정서를 혼잣말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24), (25)에서의 '미치겠다', '미쳤나봐' 같은 증거성 구문은 일상생활의 구어 발화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다 보니 상투적 표현으로 굳어지는 듯하다. (26)에서 쓰인 '-다니'의 담화적 기능에 대해서는 박나리(2013)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혼잣말 쓰임으로서의 '-다니'는 발음억양 면에서 하강조가 얹히는데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혼잣말에서 주로 쓰여 화자의 의구심과 놀라움을 표현한다고 제시된 바 있다. (26)의 경우, 화자 민우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발화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잣말하면서 언짢은 태도를 토로하고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24)~(26)에서 사용된 증거성 표지 전부는 그것이 명시하는 증거가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획득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의 현장성으로 인해 화자가 의외성을 나타내면서 개인적 정서를 표출하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기 쉽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할 여지가 있으므로 여기서 언급한 수준에서 갈무리하도록 하겠다.

(나) 정감 이입

증거성의 화용론적 특성 중 또 하나 지적할 만한 것은 '정감 이입' 또는 '감정 공유'라는 것이다. 즉, 발화 현장에서 청자(혹은 제3자)가 처한 상황을 지각할 때, 그 상황 자체를 표현하거나 추론함으로써 공감을 표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필영(2012:116-118)에서는 '-겠-', '-을 것이'를 구별하는 데 감정의 동반 여부를 그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진관초(2013)에서는 '-겠-'이 이러한 화용적 특성을 보인 것을 발화 현장의 증거의 현장성에 주목하여 기술한 바 있다. 실제로 '-겠-'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성 표지 또한 화자에 의해 정감 이입의 수단으로써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때로는 혼잣말을 통해 수행되기도 한다.

(27) 진수 : 근데 이거 상황이 아까 니가 말한 민폐녀 비슷한 거 같은데, 그치?
은영 : (표정)
진수 : 아까 뭐라 그랬더라? 아, 민폐녀는 등산 가도 꼭 발목 삐어서 남자한테 업혀 내려오고, 샤워할 땐 꼭 미끄러져 넘어져서 남자한테 안겨 나오고. 그거지?
은영 : (표정)

≪커피하우스≫5회

(28) 선노인 : (준영, 재하 두 사람 번갈아보다) 젊은 것들이 고리타분하게. 이제 안지도 꽤 됐는데 말들 편히 해.
준영 : (어색하게 웃으며)
재하 : 우리 할머니 심심하신가 보네. 별 걸 다.
선노인 : 말 편히 해야 힘들일 있으면 부탁도 하고 서로 의지할 거 아니야.

≪신들의 만찬≫15회

(27)에서는 '-더라'가 의문문으로 쓰이는데, 이때 화자는 정보의 결함으로 자문한다기보다는 청자에게서 얻은 증거를 갖고 청자의 의견에 대한 동조를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의도한 것이다. 이때 혼잣말로 발화하는 것 역시 앞의 청자에게 질문하는 체면 위협 행위를 줄이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28)에서 화자 재하의 발화도 선노인의 지적 때문에 체면 손상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준영을 살리기 위해 발화 현장에서 관찰하여 추론한 근거를 갖고 준영의 처지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고자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29) (영지 역시 서연을 보고 놀라고, 초인을 보고 더 놀라서, 굳어서 선다!)
초인 : (일어나며) 영지씨...?
영지 : ...선생님?
선우 : 다들 놀란 모양이구나. 영지씨, 이리 와서 앉아요.
영지 : 아, 예... (다가오며, 어디 앉을 지 망설여지는데)
≪카인과 아벨≫16회

(30) (무슨 말을 해야 꺼내야 될지 몰라 침묵만 지키는 네 사람. 어느 순간 웃음이 터지는 송주. 그런 송주를 바라보는 세 사람.)
송주 : 이렇게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할 말이 없다니.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마도 조선땅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죠?
≪경성스캔들≫9회

(29), (30)에서는 상대방의 체면 손상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화자가 어색한 분위기를 완화시키고자 대우법을 써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혼잣말을 선택하여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도 발화 현장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청자의 감정에 이입하여 그들의 심정을 추론함으로써 그러한 증거성을 바탕으로 발화한 것은 분위기를 살리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1.3. 화제 도입 및 화제 전환

(가) 화제 도입

앞에서 증거성의 담화 기능으로는 정보 차원에서 화자가 갖고 있는 정보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의 근거가 명세화되고 후행 발화를 이끌어내는 기능이 있다는 점과 화자의 정감 차원에서 체면 손상을 줄이기나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증거성의 특성 상 청자와 대화할 때 화제를 제기하는 데에 활용되기도 한다. 아래의 용례를 살펴보자.

(31)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양인목과 그 뒤로 따라 나오는 조진구)
양인목 : 후우! (한숨을 내쉬며) 아버님께서 이래저래 상심이 크셨던 모양이다.
조진구 : 그 춘배 어르신이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습니까?
≪제빵왕김탁구≫22회

(32) (스테이션에서 차를 마시던 정아, 선주, 민규, 간호사, 그 모습 보고는)
선주 : 두 번이나 회의 소집됐는데 두 번 다 그냥 넘어가다니. 하, 말도 안돼.
정아 : 그러게요. 경기 못 나간 건 그렇다 쳐도, 이번엔 선수가 죽을 뻔한 거잖아요.
≪닥터챔프≫6회

위의 (31)에서 밑줄 친 부분은 '-는 모양이-'의 쓰임, (32)에서는 '-다니'의 쓰임으로서 화자가 지각한 것을 바탕으로 중얼거리듯이 발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을 발화순서(turn-talking)로 보면 시작 발화로 실현된 것으로 대화의 주제 도입의 구실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화제의 도입이 화자의 주된 의도가 아닌 우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화제의 도입이 청자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데 반해, 화자가 어떤 발화를 수행할 때 혼잣말로 표현하면 그것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6] 다만, 의사소통적 장면에서 청자가 화자의 혼잣말을 의식할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화자의 혼잣말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청자가 그것을 의식하게 되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6)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화자가 소리를 내고 혼잣말을 발화하여 대화를 이루고 있지만, 청자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경우에 <그림1>의 유형 ⑤, ⑥으로 나타났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나) 화제 전환

증거성이 화제 도입의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면, 화자가 새로운 화제를 도입고자 할 때, 즉 화제를 전환하고자 할 때도 그 역할을 할당할 수 있다.

(33) 한승재 : 이거 오랜만이구만.
신씨 : !!(본다. 살짝 불안하게 눈동자가 움직이며) 어... 어쩐일이시래유?
한승재 : 세상이 넓고도 좁다더니...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군.
신씨 : 예?

≪제빵왕김탁구≫26회

(34) 민우 : 갑자기 미주가 사라질리 없어요. 대체 미주, 어디로 빼돌렸냐구요.!!
필연 : (픽 웃으며) 겁이 난 모양이구나... 모든 게 들통 날까봐 도망을 갔어.
민우 : 무슨 소리예요?

≪자이언트≫34회

(35) (완전히 캄캄한 지하방. 또깍또깍 소리)
난희 : 아저씨~ 반지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중계인 : 아... 전기가 나갔나 보네. 생각보다 넓죠?
형태 :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9회말2아웃≫1회

(31)~(32)와 달리 (33)~(35)에서는 의사소통 장면에서 상대방에 대한 반응이 증거성 표지로 실현된 것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대화에서 증거성을 사용한 화자가 상대방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현재 화제를 중단시키거나 다른 화제로 전환하려고 동문서답하고 있는데, 청자가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해 되묻고 있다. 이때, 증거성이 [화제중단], [화제전환]을 위한 유용한 장치로 판단되어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화자가 제시할 정보는 증거성이 신빙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33)~(35)에서 화자가 다른 화제로 전환, 새로운 화제를 도입할 때 구정보의 화제표시소 '은/는' 대신 신정보를 표시하는 '이/가'를 사용하고 있는 데서도 이를 방증할 수 있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3.2. 비의사소통적 장면에서의 혼잣말

비의사소통적 장면에서의 혼잣말은 발화 현장에서 대화의 상대방인 청자가 전제되지 않고, 화자가 스스로를 청자로 삼거나 보이지 않는 청자를 상정하여 발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그림1>의 유형 ①, ②, ③에 해당되는데, 담화화용상 청자라는 중요한 변수가 없어 의사소통적 장면의 혼잣말에 비해 단순해 보인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화제와 관련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 이 절에서는 정보 차원 및 정감 차원에서 비의사소통적 장면의 혼잣말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3.2.1. 정보 다듬기 및 증거 제시

(가) 자문, 추궁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어떤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그 정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어떤 것과 일치할 수 있는데, 발화 시에 기억이 잘 나지 않았을 경우가 있고, 때로는 그 정보가 기존의 지식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때 청자가 존재하는 의사소통적 장면에서 청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화행을 우리는 3.1.1.에서 살펴보았다. 이와 달리 화자 혼자만 있는 비의사소통적 장면에서는 스스로를 청자로 삼아 기억을 다듬어 가면서 [자문], [추궁]하게 된다.

(36) 개인 : 안 그래도 돈 없어 죽겠는데... 1시간 12분.... 얼마야? 악~~~
(그래도 기운 차리고 일어서는) 동쪽이라. 여기서 동쪽이 어디더라?
(동쪽 동쪽 하며 사방 보는데 대문 쪽이 동쪽같다. 희망에 차 대문 쪽으로 쟌! 손 뻗으며 일갈한다) 동쪽!!!

≪개인의 취향≫2회

(37) (전철 안 – 이제 막 시작된 듯 보이는 연인이 속삭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
춘희 : 대체... 어떤 거길래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사랑이란 게 대체...
춘희 : (혼잣말) 뭐길래...?

≪9회말2아웃≫7회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비의사소통적 장면인 (36)에서는 '-더라'가 의문문으로, (37)에서는 '-길래'가 의문문으로 쓰이고 있다. (36)에서 화자는 발화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과거에 지각한 것과 일치하여 스스로에게 과거 지각에 질문함으로써 문제의 정보를 다듬어 가며 보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37)은 (36)과 사정이 다르다. (37)의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관찰한 사실은 반드시 과거에 경험했어야 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지 않아 '-더라'가 쓰인 (36)과 대조적이다. 즉, '-길래'의 의문문은 후행절에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가 나타나며, 그 정보가 화자의 이미 앎과 일치하지 않아 그 원인•이유에 대한 질문이 선행절에 반영된 것이다.[17] '-더라' 구문과 '-길래' 구문의 선행절에 의문사를 동반해야 하는 것은 정보의 불안정성, 불완전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 자기설득, 뒤늦은 깨달음

화자가 자신을 청자로 삼아 증거성을 통해 정보의 출처를 제시할 때 혼잣말로 표현하면 [자기 설득]의 효과가 빚어진다. 기존 증거성 관련 연구에서 [뒤늦은 깨달음]으로 파악되었던 것이 담화 기능적으로 다루어지면 [자기 설득]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38) (병실)

애랑 : (종이컵 두 개 들고 들어오며)... 아니 이 양반이 커피 뽑으러 갔다 온 사이에 어딜 간 거야... (하다 보면)

(침상 위에 아까 목에 걸어줬던 스카프 놓여있고...)

애랑 : <u>여기 병실에 들어왔었나 보네</u>... (종이컵 한쪽에 놓고 옷장 문 열어보고) 어? 옷이 없네...아니 옷까지 갈아입고 어딜 간 거야...

≪천만번 사랑해≫51회

17)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께서는 (37)에서의 '-길래'가 선행절에 의문사를 수반하며 전체 문장이 수사의문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용법은 증거성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 필자는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길래'의 의문문은 화자가 지각한 사태가 후행절에 드러난다. 즉, (37)에서 화자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지각한 후, 이들에게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정인아(2010)은 '동일관찰자 시점'이 개입되는 것으로 또는 시점 이동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39) (순남, 다시 찻잔 들고 자기자리로 가다 오필교의 책상 앞에 멈추더니 찻잔을 놓고 작은 액잘르 집어든다.)
순남 : 와이프가 이쁘네. 곱상하니 좋은 집안에서 얌전히 자란 모양이네...
≪여우야 뭐하니≫5회

(38), (39)에서는 화자가 단독적 장면에서 지각하여 추론한 사실을 자신을 제삼자로 삼아 추론 증거성 표지를 통해 혼잣말로 제시할 때 자기 설득(self persuasion)의 심리적 작용이 일어난다. 이는 기존의 의미론적 연구(박진호 2011ㄱ, 2011ㄴ; 박재연 2013)에서는 증거성을 '뒤늦은 깨달음'(hindsight, deferred realization)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된다. Aikhenvald(2004:202)에 의하면 뒤늦은 깨달음은 화자가 이전에 목격은 했으나 그것이 갖는 의미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국어에서 증거성 표지가 과거 시제 표지에 결합될 때 흔히 산출되는 의미이다(박재연 2013:96-103). (38)에서는 과거 시제 표지와 추론 증거성 표지와의 결합으로, (39)에서 관형사형 어미 'ㄴ/은'이 과거 시제가 아닌 '서실법'(realis)의 요소라 하더라도 증거성 표지와의 결합으로 이러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18)]

3.2.2. 정감 표출 및 정감 이입

(가) 정감 표출

이미 3.1.2.에서 지적했듯이 발화 현장에서 증거성을 통해 얻어진 정보는 미처 내면화되지 못했으므로, 화자가 심리적으로도 자극을 받아 부정적인 감정으로 전환되어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청자가 존재하지 않는 비의사소통적 장면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관찰하는 여유가 많아져 내성적

18) 박진호(2011ㄱ, 2011ㄴ)과 박재연(2013)에서는 '어젯밤에 비가 왔네', '철수가 범인이었구나' 등과 같이 '-네'나 '-구나'가 과거시제 표지 '-었-'과 결합한 예를 주로 제시하였는데, 우리의 말뭉치를 통해 추론 증거성 표지를 과거시제 표지와 공기할 때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박재연(2013)에서는 '뒤늦은 깨달음'을 의미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흔적 지각'과 구분하여 논의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뒤늦은 깨달음'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다만, 본고에서 제시한 경우는 개념상 '흔적 지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endophoric) 지각에 의해 스스로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이때는 이른바 증거성 구문의 1인칭 주어 제약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다.

(40) (재하와 인주의 다정한 모습이 들어있는 액자 보이고 멈칫하는 준영.
천천히 사진 들어 보는 준영, 가슴 아프게 보고)
준영 : (혼잣말) 눈물 나게 잘 어울리네.

≪신들의 만찬≫5회

(41) (은영, 얼른 눈물을 막 닦으며)
은영 : (혼잣말) 진짜 미쳤구나 서은영... 사춘기도 아니고.. 너 뭐하는 짓이야..? (하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는, 스스로 어이없는) 하...

≪커피 하우스≫7회

(40), (41)에서는 비의사소통적 장면에서 화자 본인이 눈물을 흘리는 행위를 의식하여 마치 청자에게 진술하는 것처럼 혼잣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화자가 청자 또는 제3자를 관찰하여 비꼬아 말하거나 비난을 표할 수 있다고 언급했듯이 화자는 자신을 관찰 대상으로 삼을 때 스스로 비웃거나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것을 이들 용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비의사소통적 장면에서 타인을 빈정거리거나 불평을 토로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42) 다운 : (긴장해서 작게 더듬는) 쉬..쉿.. 조..조용.
준영 : (보면)
집주인아줌마소리 : 아가씨 집에 있어? (문 두드리며) 이 봐! 아가씨 또 안 들어왔나 보네. 어휴 속상해! (가는 발자국 소리)

≪신들의 만찬≫7회

(42)에서와 같이 화자인 집주인아줌마가 청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발화 현장에서 청자와 관련하여 추론한 것을 혼잣말의 형식을 선택하여 개인적 정서를 표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19]

19) 비의사소통적 장면에서 청자를 상정하여 혼잣말할 경우는 <그림1>의 유형 ③에 해당된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나) 정감 이입

상술한 발화 현장에서 청자(혹은 제3자)가 처한 상황을 지각할 때, 화자는 그 지각한 상황 자체를 표현하거나 추론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듯이 공감을 표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의사소통적 장면에서도 화자는 청자를 상정하여 원격적(遠隔的)으로 공감을 나타내면서 염려의 뜻을 내비치기도 한다.

(42) 단희 : 방지혁, 나 좋자고 사장아저씨 미는 거 아니다.
춘향일 위해서도 변사장님이 백 번 낫지!! (씩씩거리며 가면)
지혁 : (단희야~ 쫓아가며 혼잣말) 이몽룡,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쾌걸춘향≫10회

(43) (은찬, 자전거를 세우고 옥상을 보는, 먹먹한)
은찬 : (보고 싶은, 맘 아픈, 중얼거리는) 아직 퇴근 안 했나 보네...
≪커피프린스1호점≫12회

'-구나'가 쓰인 (42), '-나/는가 보-'가 쓰인 (43)에서 보이듯 화자가 공감을 나타내는 대상이 발화 현장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자를 상정하여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것을 근거로 추론함으로써 청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증거성 표지가 화자의 혼잣말 발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혼잣말은 화자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라 쉽게 간주되었지만, 실제 말뭉치 용례를 통해 혼잣말이 그저 혼자서 중얼거리는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닌 화자의 인지적 작용으로부터 담화화용적 요소까지 관여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한국어 증거성이 혼잣말로 쓰일 때 일차적으로 청자의 유무를 구분함으로써 그 담화기능적 특성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의 속성', '화자의 정감', '대화의 화제'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검토하였다. 이 중 특히 증거성이 갖고 있는 정보 속성의 양면성으로 인해 대립적인 담화 기능이 관찰되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20)

<표 3> 증거성 표지의 혼잣말 담화화용적 기능

장면	요인	상위기능	하위기능
의사소통적	정보	정보 요청	정보 재확인, 정보수정, 전제유발...
		증거 제시	(개인적) 이유설명, 부연...
	정감	정감 표출	비꼼, 비난, 불평...
		정감 이입	공감 표시, 체면 위협 감소...
	화제	화제 도입	대화 분위기완화, 발화순서 쟁취...
		화제 전환	현재 화제 중단, 동문서답...
비의사소통적	정보	정보 다듬기	자문, 추궁...
		증거 제시	자기설득, 뒤늦은 깨달음...
	정감	정감 표출	(스스로)비꼼, 자조, 자책...
		정감 이입	원격적 공감 표시, 염려...

본고는 기존의 담화화용론적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혼잣말의 담화인지적 특성과 비교적 최근에 논의가 시작된 한국어 증거성의 연구를 결부함으로써, 통사의미론적 차원을 넘어 실제 드라마 말뭉치 용례를 통해 한국어 증거성 범주의 담화화용적 특성을 살펴본 바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어 증거성 표지가 구어에서 주로 나타나므로 담화화용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본고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고찰하지 못한 것은 본고의 한계점으로 남아 있으나,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 여기서 하나의 용례가 '정보', '정감', '화제'의 여러 범주에 속해 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요한다. 본고에서 이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여 분석한 것은 기존의 담화 관련 연구가 주로 화자의 정감만을 고려하여 담화 기능을 설정한 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말뭉치 용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더 세부적인 기능을 가지는 용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분류되기 어려운 예외적인 용례도 있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보', '정감', '화제'를 여러 기능 유형 가운데 식별될 수 있는 최대공약수로 간주하여 이 연구를 진행했음을 밝혀둔다. 또한 100 개 이상의 준구어 용례를 분석한 것이므로 그 분석 결과가 어느 정도 일반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참고문헌

강현화, 황미연(2009), “한국어교육을 위한 불평표현 문형 연구-불평화행과 인용표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말연구」24, 한말연구학회, 5-31쪽.
고영근(1989/1993),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국립국어연구원(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사동아.
김경애(2002), “증거표지와 정보의 출원”, 「論文集」33, 안성산업대학교, 51-58쪽.
노대규(1997), 「한국어 감탄문」, 새미(국학자료원).
박나리(2013), “ ‘-다니’에 대한 한국어 교육문법적 기술방안 연구 - 담화화용정보의 비교대조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51, 이중언어학회, 45-80쪽.
박용익(2010), 「대화분석론」, 백산서당.
박일섭(2007), 「혼잣말의 특성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재연(1999), “ ‘-다고’류 어미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 「애산학보」24, 애산학회, 171-194쪽.
박재연(2000), “독백과 독백문 종결어미에 대하여”, 「국어학논집」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5-48쪽.
박재연(2005),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語學硏究」41-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01-118쪽.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박재연(2008), “ ‘-던가’, ‘-더라’ 의문문의 특성에 대한 연구”, 「국어학」53, 국어학회, 199-227쪽.
박재연(2013), “한국어의 인식론적 범주와 관련한 몇 문제”, 「국어학」66, 국어학회, 79-107쪽.
박진호(2011ㄱ), “韓國語에서 證據性이나 意外性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 사회」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25쪽.
박진호(2011ㄴ), “시제, 상, 양태”, 「한국어 통사론의 현상과 이론」(유현경 외 7인), 태학사.
송재목(2007), “증거성(evidentiality)과 주어제약의 유형론 : 한국어, 몽골어, 티벳어를 예로 들어”, 「형태론」9-1, 형태론편집위원회, 1-23쪽.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사동아.
윤경원(2010), “한국어 혼잣말의 의사소통적 특성 연구”, 연세대하교 석사학위논문.
이의종(2012), “증거성과 정보 관할권의 상호작용”,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이필영(2012), “추정과 비추정의 ‘-겠-’의 의미”, 「語文硏究」73, 어문연구학회, 109-126쪽.
장경희(1985), 「현대국어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장석진(1989), 「話用論硏究」, 탑출판사.
전혜영(1996), “ ‘-다고’ 반복 질문의 화용적 기능”, 「언어」21-3, 한국언어학회,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

889-911쪽.
전혜영(2002), “공손의 화용론”, 『화용론 연구』(이성범 외), 태학사.
정경숙(2012), “한국어 종결어미 ‘-네’의 의미 : 증거성 및 의외성과 관련해서”, 『언어』 37-4, 한국언어학회, 995-1016쪽.
정인아(2010), “한국어의 증거성 범주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진관초(2013),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증거성 표지 연구 : 추론 증거성 표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관초(2015), “한국어 종결어미 ‘-더라’와 중국어 ‘來着’에 대한 대조 연구 - 증거성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어학』67, 한국어학회, 217-245쪽.
진정란(2005), “한국어 이유 표현 ‘-길래’의 담화 문법 연구”, 『담화와 인지』12-3, 담화인지언어학회, 137-154쪽.
Aikhenvald, A. Y. & Dixon, R. M. W. (2003), *Studies in evidentiality*, Amsterdam: John Benjamins.
Aikhenvald, A. Y. (2004), *Evidenti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m, Jinung (2012), Korean Evidentials in Discours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Kwon, Iksoo (2010), I Guess Korean Has Some More Mirative Markers: -Napo- and - Nmoyang-, Presented at the 2010 annual LSA meeting, Baltimore, Maryland.
Kwon, Iksoo (2012), Please confirm what I inferred: On the Korean inferential -evidential marker - napo-, *Journal of Pragmatics* 44:8. 958-969.
Lee, Hyo-Sang (1991), Tense, aspect, and modality: a discourse-pragmatic analysis of verbal affixes in Korean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UCLA.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UP(이익환, 권경원 역(1992), 『화용론』, 한신문화사).

진관초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외솔관 국어국문학과]
전자 우편: korangism@naver.com

원고 접수일: 2015년 4월 15일
원고 수정일: 2015년 6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5년 6월 22일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국립정치대학교) | IP:140.119.***.89 | Accessed 2020/03/20 14:07(KST)